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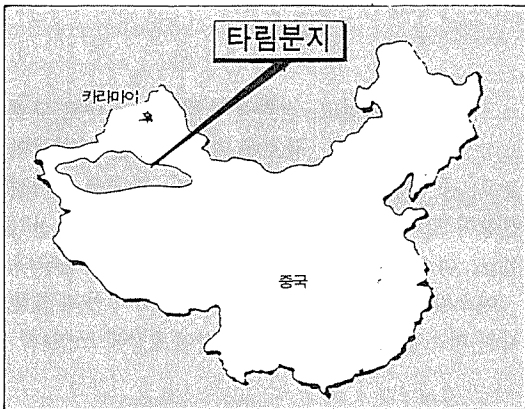
중국 타림분지 유전개발

금세기 최대의 미개발 유전지역인 중국 내륙유전의 개발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륙 유전의 개발을 개방기로 입장을 바꾸고 지난 2월 타림분지를 비롯한 12개 유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의해 최초로 타림분지의 개발일정이 시작됨으로써 세계 각국 회사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타림분지는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개발 우선권도 고려될 수 있어 그만큼 각국 석유회사들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지난 4월초 휴스턴에서 열린 中美 세미나에서 중국 국영석유공사(CNPC)의 Wang Tao 회장은 타림분지개발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반응이 매우 강하다

타림분지 개념도



고 말하고 1단계 개발예정지구인 남부지역 5개 블록에 대한 개발입찰에 3월말 현재 적어도 16개국의 61개 기업 이상이 참가 의사를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이 세미나는 타림분지의 개발여건과 범위 그리고 입찰제안의 조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CNPC와美 Halliburton 사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CNPC의 관리들은 중국 석유산업의 개발전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 Zhang Yongyi 부회장은 동부지역의 석유 및 가스생산을 안정시키고, 서부지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하류부문의 시설을 확충하고, CNPC를 다국적 석유회사로 발전시키는 것이 전략목표라고 말하였다.

타림분지의 잠재력

석유관계자들은 57만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타림분지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매장량은 1백억~3백억 배럴로 추정된다.

그러나 탐사와 개발에는 막대한 코스트와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 이 지역이 오지에다가 험한 작업조건, 그리고 파이프라인 등 하부구조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송 및 통신 등 하부구조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CNPC는 밝혔다. 유전지역까지 이르는 4백km의 고속도로가 '94년 완공목표로 건설중이며 파이프라인 부설도 계획되어 있다.

외국기업에 개방되는 41만 평방km 지역은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중 제1차로 입찰을 실

시할 곳은 남부의 7만2천3백 평방km에 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곳에 대하여는 중력검사, 항공자기측정, 그리고 2D 및 3D 지진파 탐사 등이 이미 실시되었으며, 130개의 탐사정과 평가정을 시굴하였다고 CNPC 개발국의 *Tong Xiao Guang* 부국장은 밝히고 있다.

중국 남지나해의 개발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아모코의 개발담당 부회장 *Work*씨는 타림분지의 제1차 개발지구는 수년동안 투자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생산원유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이 결정적인 고려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타림분지 개발의 경제성 여부는 파이프라인의 소유권 및 이용료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파이프라인 건설

중국 국영석유개발공사(Cnodc)의 *Liu song Wei* 회장은 타림분지의 파이프라인 부설을 위하여 CNPC가 사업추진을 관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1994년에 건설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파이프라인 이용료에 대하여는 제1차 개발입찰에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신장 자치구의 *Korla*로부터 *Henan*省的 *Luoyang*에 이르는 연장 3,500km의 파이프라인은 40만b/d의 수송능력을 갖출 것이며, 유전발견이 가시화되는 1997년까지 완공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입찰조건

CNPC의 자회사인 Cnodc는 입찰제안과 외국 회사와의 협상 그리고 계약이행 감시를 맡고 있다.

Liu 회장은 외국회사와의 협상에서 개발 리스크는 외국회사가 부담하며, 유전발견시 합작투자를 하며, 생산원유는 CNPC와 외국 파트너와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입찰을 위해 관련 데이터의 판매와 현지조사가 4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입찰마감은 10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다.

5월 5일에는 북경에서 CNPC 주관으로 1차 입찰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 입찰설명회는 미국, 일본, 유럽 등 10여개 국가에서 80여개 회사가 참여하였

다. 국내에선 석유개발공사, 삼성, 현대, 유공, 한보에서 각기 파견된 조사단이 참석하였다.

입찰결과는 1994년 2월 말에 발표되고, 3월 1일부터 계약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Cnodc는 밝히고 있다. 탐사계약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회사는 단독으로 또는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한회사가 복수의 콘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다.
- 탐사기간은 3단계로 나뉘어 모두 8년이 될 것이다. 개발기간은 개발-프로그램의 승인으로부터 시작되며, 승인된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 상업생산이 시작되면 15년 생산기간에 들어간다.
- 탐사포기는 1단계 탐사후 대상지역의 40%, 2단계 후에는 개발·생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50%, 3단계 탐사후에는 개발·생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포기할 수 있다.
- 생산된 원유의 분배에는 5%의 공업세와 연간 1백만톤 초과분에 대하여 최고 12.5%의 로얄티가 포함될 것이다.
- 외국 계약회사가 광구를 운영하되 Cnodc측 인사를 회장으로 계약회사 대표를 부회장으로 하는 합동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 계약회사는 경합할 경우 중국산 자재와 인력을 우선 사용토록 한다. 또한 중국 인력의 훈련 및 기술전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Liu 회장은 타림분지의 개발에 대하여 두개의 특별한 인센티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는 개발계약자는 중국의 국내 석유시장에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Cnodc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며 대가는 국제 시장가격에 준하여 달러화로 결제될 것이다. 또한 Cnodc는 타당성이 있으면 유전으로부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도 건설할 것이라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가스도 Cnodc에게 국제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1994년 1/4분기에 추가 탐사광구 및 10개 유전에 대한 개방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 유전은 파이프라인, 통신 및 수송수단 등 하부구조와 숙련된 노동력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

■ (OGJ, '93. 4)